

1950년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를 통해 본 대중문화와 연애풀경*

강옥희**

1. 1950년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와 그 의미
2. 서양문화와 서양식 사고방식의 내재화 공간 - 『자유부인』
3. 원초적 유희와 욕망, 정신적 사랑의 혼재 공간 - 『인생화보』, 『실락원의 별』
4. 육체적 욕망의 발화와 사회적 명분의 공간 - 『별아 내 가슴에』
5. 맺음말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50년대 대표적인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를 분석하여 당대 대중문화의 양상과 연애풀경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정비석의 『자유부인』, 김래성의 『인생화보』, 『실락원의 별』,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이다

1950년대 대중소설은 변화해가는 당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대중연애소설의 서사가 전개되는 연애풀경, 데이트 코스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든다. 그들의 연애풀경을 따라가다 보면 당대인들의 삶의 양상, 의식, 심지어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패턴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연애풀경이나 당대 삶의 실상을 리얼리티 있게 볼 수 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537)

**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1950년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는 고궁, 교외, 다방, 중국 집, 극장, 무도장, 유원지, 바닷가 해수욕장, 온천장, 골프장, 백화점 그릴, 약수터 등 다양하다. 작중인물들이 연애하는 장소는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유행이나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데, 어떤 데이트 코스를 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의도와 행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무척 흥미롭다. 즉 작중 주인공들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은 단순한 소비 공간일 때도 있고, 순수한 사랑의 표상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하며, 때로는 욕욕에 불타는 욕망을 발현하는 곳 등 다양한 의미표지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작품을 통해 대중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가 단순하게 그들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동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50년대 대중의 문화적인 취향 및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재구성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망들을 통해 대중소설에 반영된 대중의 욕망을 읽어 낼 수 있었다. 새로운 문화의 장이며 때로는 욕욕의 공간으로 형상화되는 댄스홀이나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받아들여지게 된 근대적이고 새로운 이국체험을 소비하게 한 공간으로서 극장, 그릴이나 골프장 등 새로운 공간을 체험하면서 대중은 이국적인 정서와 문화의 호흡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 열광 할 수 있었다.

(주제어: 데이트 코스, 연애문화, 소비패턴, 해수욕장, 온천, 백화점, 그릴, 소비 공간, 욕망의 발현, 문화적 취향, 이국체험, 이국적 정서, 대리체험)

1. 1950년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와 그 의미

‘돌아오는 토요일은 그대와 함께/ 단둘이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라
나/ 그리운 님 다시 만날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아베크의 토
요일/ 즐거운 토요일 젊은 날의 토요일’. 앞에 인용한 것은 김문웅 작사,
박시춘 작곡의 〈아베크 토요일〉의 가사 일부분으로 1956년 백설희가 불
러 히트했고, 50년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형모 감독의 영화 〈자유부
인〉에 삽입되기도 했다.¹⁾ 노래 제목과 가사에 등장하는 아베크는 원래
불어 전치사 avec에서 온 말로 ~과 함께 라는 뜻이며, 영어로는 with의
의미를 지닌다. 전치사로 쓰이던 아베크가 일본에 들어와 연인을 지칭
하는 アベック라는 용어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 잡지에 아베
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1920년대 연애라는 단어가 “이국의 언어감정
을 번역하기 위해 계발된 단어”²⁾ 였다면, 1950년대 아베크, 아베크족이
라는 새로운 단어의 유입은 1920년대와는 다른 새로운 연애 문화의 시
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아베크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연애문화는 1950년대 대중소설과 영
화에서 잘 볼 수 있다. 특히 1956년에 제작된 영화 〈서울의 휴일〉(감독
이용민)은 휴일 오전10시부터 밤까지 어느 신혼부부에게 벌어지는 다양
한 사건을 통해 50년대 서울 사람들의 문화적 취향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휴일〉은 비너스 산부인과 의사인 남희원과 조선일보 사회부 기
자인 송재관이라는 젊은 신혼부부의 휴일 아베크 데이트 계획이 남편친
구들의 장난으로 어긋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데, 작품 안에 드러나는 여러 공간을 통해서 해방과 전쟁 후의 새롭고

1) 본문에서 영화는 〈 〉로 소설은 『 』로 구분하기로 한다.

2)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15쪽

다양한 연애문화가 잘 드러난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휴일 아베크 데이트는 백화점 쇼핑, 아서원에서 점심, 한강에서 스케이트 보드와 수상스키 타기, 덕수궁 산책, 영화관람, 미장 그릴에서 스테이크로 저녁, LA필 야외연주 구경이라는 “로마의 휴일 앤공주 특종잡기보다 힘든”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들의 데이트는 남편 직장 동료들의 장난으로 무산되고, 엉뚱한 오해와 소동, 그러나 보람 있는 일로 마무리되는데, 다양한 사건사고가 벌어지는 아베크족의 데이트 장소인 전후 근대도시 서울의 모습에서 문화적 환경과 취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 대중소설을 연구하는데 당시의 영화나 소설에 드러난 당대적 문화나 대중의 반응 및 취향 등은 연구의 흥미로운 단서가 된다. 특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인 배경을 가지는 물리적 실체이며, 그 속에 있는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장소는 ‘특별하고 고유한 장소성’을 부여 받게”³⁾된다. 1950년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공간은 그런 점에서 당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식민지시기에 등장한 많은 대중소설은 근대적인 도시의 삶을 그리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욕망을 보여주었고, 독자들은 작품 속의 새로운 체험을 갈망하며 작중인물을 통해 욕망을 충족시켰다. 1950년대 대중소설 역시 해방 후의 급격한 시대적, 문화적 상황과 함께 변해가는 당대인들의 의식과 모습을 잘 형상화해냈다. 그중에서 대중연애소설의 주된 공간이 되는 연애장소, 데이트 코스는 대중적인 서사물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하면서 당대적 삶의 변화양상을 잘 보여주는 창으로 기능한다.

3) 민도정,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 이봉구의 수필 『명동백작』을 기초로 하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쪽.

이렇듯 대중의 취향과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대중소설에서 작품의 서사가 진행되는 공간은 작중인물들의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지표 구실을 한다. 해방 이후 전쟁과 휴전, 미군의 진주, 서구적 자본주의 문화의 등장은 대중의 삶의 양식과 의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공간에 대한 체험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기에 공간에 대한 고찰은 인간 삶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50년대 유행했던 대중소설에 등장한 데이트 코스를 분석하여 그 속에 등장하는 연애의 방식을 찾아보고, 각각의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인공의 연애가 중심 서사를 이루는 대중소설에서는 작중 인물들의 연애동선을 통해 당대인들의 삶의 양상, 의식, 문화적 취향, 좋아하는 오락, 심지어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패턴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당대의 문화 및 삶의 풍경을 재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미시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문학연구에서도 식민지 경성의 고찰을 통해 당대 대중의 삶의 양상을 살펴거나 근대문화 속의 연애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⁴⁾ 문화론에 대한 관심으로 1950년대 문화와 영화에 대한 논의가 쏟아져 나오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근대적인 체험이 당대문화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살핀 연구가 나오기도 했고⁵⁾ 도시의 공간성을 도시소설이나 도시 시 등의 범주로 묶어 연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문학과 다른 분야인 문화지리학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지리학적 공간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4) 김진송,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 연구, 1999.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신명직,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 연구, 2003.

전봉관, 『경성기담』, 살림, 2006.

5) 도시를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많은 도시소설들이 그것이다.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 같은 특정한 공간과 연애의 문화적 의미망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문학텍스트 속 공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50년대 대중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는 고궁, 교외, 다방, 중국집, 극장, 무도장, 유원지, 바닷가, 해수욕장, 온천장, 골프장, 백화점, 그릴, 약수터 등 다양하다. 작중인물이 연애하는 장소를 통해 당대의 유행이나 문화적 취향, 당대인들의 인식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데이트 코스를 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의도와 행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 무척 흥미롭다. 즉 주인공들이 살아 숨 쉬며 데이트 하는 공간은 단순한 소비의 공간이거나 순수한 사랑의 표상 공간, 욕욕에 불타는 욕망 발현의 장소 등 다양한 의미표지를 가지고 등장한다.

1950년대 『아리랑』과 함께 대표적 오락잡지였던 『명랑』 1956년 11월 호에는 서울 곳곳의 데이트 장소 및 코스별로 유명한 곳과 각 데이트 코스를 이용하는 계층을 언급한 기사가 있다.⁷⁾ 이 기사는 아베크족이 좋아하는 서울의 데이트 코스로 돈화문, 혜화동 코스, 삼청공원, 남산, 장충단 공원 약수터, 원효로 종점부터 마포, 도봉에서 창동, 북한산 진관사 등의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언급된 아베크족이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는 당대 대중소설에 자주 등장하던 공간이었다.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가회동⁸⁾, 『실락원의 별』에 등장하는 혜화동, 현재 엠베서더

6) 이은숙·김희순·정희선, 「도시소설 속에 나타난 도시민의 여가공간 변화: 1950년 이후 수도권 배경의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11권 3호, 2008. 이은숙·김일림·장은미, 「소비를 통해본 서울 도시민의 생활양식:1950년대 이후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21권 1호, 2009. 정인숙, 「도시연구동향:국문학분야 도시연구의 동향과 전망」, 『도시인문학연구』3권 1호, 2011. 민도정,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이봉구의 수필 『명동백작』을 기초로 하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등을 문화지리학 연구의 성과로 들 수 있다.

7) 「서울의 랑데부 코스」, 『명랑』, 1956. 11. 38~ 43쪽.

호텔이 있는 일본인 유곽 근처의 장춘단 등이 그곳이다. 그 외 1950년대 대중소설에는 당시 일반적인 대중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호화로운 공간이 다수 등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년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를 통해 그 공간의 의미를 탐색하고 당대의 문화 및 연애풀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정비석의 『자유부인』, 김래성의 『실락원의 별』, 『인생화보』,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 등이다.⁹⁾ 이 작품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정비석, 김래성, 박계주가 195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소설가로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당시 대중문화와 대중의 취향을 민감하게 드러내어 당대의 사회상과 데이트 문화를 살피는 텍스트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2. 서양문화와 서양식 사고방식의 내재화 공간 - 『자유부인』

전후 한국 문화가 전전의 문화와 구별되도록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미국의 대한정책과 이승만정부의 정책, 한미관계의 변화,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 실존주의와 니힐리즘을 비롯한 외래 사상과 문물의 유입을 들 수 있다.¹⁰⁾ 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은 폐허였으며 전쟁고아, 전쟁 미망인 등의 전제민들과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남성들을 대신해

8) 〈자유부인〉에서 오선영과 한태석이 일탈을 저지르는 공간인 가회동의 여관은 영화에서는 북한산의 산장으로 등장한다.

9)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자유부인』 상, 하(정음사, 1954), 『인생화보』 1, 2, 3부(청운사, 1954), 『실락원의 밤』 상, 중, 하(삼성출판사, 1983), 『별아 내 가슴에』(삼영출판사, 1975)이다.

10) 이상경, 『1950년대 한미관계와 한국문화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쪽.

삶의 전장으로 뛰어든 양공주 아프레 걸들의 퇴폐가 극을 이루고 주택 분쟁, 사기사건 등이 난무하던 처참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참한 현실과 대비되는 이 시기의 문화 코드는 ‘허무’와 ‘향락’¹¹⁾이었는데, 이는 이승만 정부의 정책이나 미국의 문화정책이 대중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대중으로 하여금 그 정책들이 불리일으키는 욕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해, 현실을 망각하게 하려는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는 전후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불만을 화려한 영화화면으로 달래고, 미국은 물질적 풍요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한반도 내 냉전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리우드 영화나 댄스 등의 새로운 문화가 물밀 듯이 밀려들어왔다.¹²⁾

전후의 이러한 변화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망각하기 위해 새롭고 화려하고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지리멸렬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기제로 인식되어 대중을 매혹시켰다. 이러한 까닭으로 1950년대 대중소설에는 외래사상과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취향의 변화 및 삶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중소설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전후 새로운 문화와 환경이 작품속의 연애나 데이트풍속을 바꾸기도 하였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1950년대 작품들 중에서도 당대의 유행을 잘 반영하여 그에 따른 대중의 문화적 취향과 특성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주인공들의 자유로운 연애와 일탈,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 그로 인한 논쟁적인 면모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한 영화로 제작되면서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키스신 논란이나 화려한

11) 이상경, 위의 논문, 14쪽.

12) 이상경, 위의 논문, 21~21쪽.

화면구성, 댄스, 패션, 음악 등 새로운 풍속을 시각화한 장면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작품과 영화 속의 “대도시 서울은 미국이 전시되고, 소비되는 공간으로서 재편”¹³⁾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애의 양상과 그로 인한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로 가장 흥미로운 곳은 댄스홀이다. 미군의 진주와 함께 물밀 듯 들어온 문화 중 한 가지가 서양식 댄스이며, 작품 속에서 평범하고 현숙한 부인 오선영을 일탈하게 한 것이 댄스이다. 오선영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고급관리, 정치가, 공무원 등의 아내들로 구성된 여학교 동창모임 화교회이다. 화교회의 유한마담들은 새롭게 들어온 서양의 댄스를 취미와 사교라고 생각하고 파티를 열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취향을 받아들인데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었다. 선영은 그들을 만나면서 집안에서 살림만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초라하게 여기고, 사교댄스 정도는 현대 여성의 교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옆집 대학생 춘호와 춤에 빠지고,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꿈꾸며 서양물품을 판매하는 양품점에서 일을 하다 가정을 버린다. 오선영이 교양으로 생각했던 댄스는 대학교수 부인 오선영을 옆집 대학생 춘호의 유혹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로 만든다.

선영을 타락으로 이끈 댄스와 댄스 홀은 해방 후 급속히 밀려온 대표적인 서구문화로 미군의 진주와 함께 성행했고, 1957년 무렵 서울 시내에는 모감보, 삼일구락부, 뉴스맨 구락부, 동화홀, 무량루즈, 컨티넨탈, 카아네기, 코넬, 송림, 파라다이스, LCI, 여정, 황금마차, 국일관, 천일, 신성, 후로리다 등 20여개의 댄스홀과 카바레가 생기기에 이른다.¹⁴⁾

13)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 1950년대 한국의 미국영화 상영과 관람의 의미」,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6, 77쪽.

오여사는 문안에 썩 들어서자, 너무나 화려한 눈앞의 광경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도록 황홀하게 놀랐다. 저만치 악대 위에서 파도처럼 웅장한 음악이 유량하게 흘러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니와, 삼십평이 훨씬 넘을 듯싶게 넓으나 넓은 홀에서, 호화찬란하게 채린 칠팔십명의 남녀들이 제각기 짝을 지어 멋들어진 스텝을 밟고,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흥겨웁기 짝이 없었다. 천정에서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오색전등은, 문자 그대로 불야성을 이루었고, 바깥은 상당히 치운 날씨건만, 홀 안의 공기는 훈훈하고도 향기로웠다. 오선영여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 안에 이처럼 호화로운 세계가 있을 줄은 몰랐다. 돈 삼백환만 내어놓으면 이처럼 호화판으로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 몹시 부끄럽기도 하였다.¹⁵⁾ (『자유부인』 상권, 227쪽)

“내일 저녁 일곱 시에 창경원 안에 있는 수정궁에서 열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영이도 파아트나아를 꼭 한 사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참 내일 밤을 새어가면서 춤을 출지도 모른대!”

“어머나 창경원안에 수정궁이라는 게 있니!” 오선영 여사는 수정궁이라는 말에서 화려한 궁전을 연상하면서 물어보았다.

“창경원 식물원에 커다란 연못이 있지 않아!”

“그래 있어”

“그 연못가에 커다란 건물이 있지. 왜! 그게 바로 수정궁이야. 옛날에는 임금님께서 달구경 물구경을 하시려고 행차하시던 곳이야” (『자유부인』 상권, 213쪽)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댄스홀은 창경궁안의 수정궁¹⁶⁾과 LCI 해군장

14) 윤선자, 『1950년대 사교댄스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도의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권, 223~254. 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 열풍 :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9. 287쪽에서 재인용.

15) 본문에서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인용문 옆에 책제목과 인용한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16)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수정궁은 1909년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을 들이는 창경궁 개조사업 때 소촌당지 대촌당지의 인공연못을 만들고 난 뒤 만든 수정이라는 일본식 정자이다.(최예선·정구원, 『청춘남녀 백 년 전 세상을 탐하다』, 모요사, 2010. 73쪽) 이 수정궁은 식민지 시기부터 존재했고 60, 70년대 수정궁은 사교장 예식장 등으로 쓰였으나 1984년 창경궁 복원사업과정에서 철거되었다.

교구락부이다. “오선영에게 있어 춤은 일탈을 꿈꾸게 하는 매개체이자 섹슈얼리티를 발산하는 도구”이며, 작중에서 선영이 춘호와 한태석을 만나는 댄스홀은 오선영에게 “내재되어 있던 억눌린 성적욕망을 실현”¹⁷⁾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선영이 춘호와 함께 처음으로 기본 댄스홀 LCI구락부(해군장교구락부)는 영화 <자유부인>의 댄스홀 장면에서 등장한 곳으로 당시 국일관과 함께 고급스러운 댄스홀로 유명했고, 화교회 회원들이 파트너 동반 댄스파티를 열었던 수정궁은 창경원 안의 춘당지 옆에 지은 일본식 정자였다.¹⁸⁾ 해방 이후 댄스와 댄스홀은 미군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문화로 처음에는 댄스의 습득을 사회적 교양으로 인식하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댄스홀이나 카바레가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풍기문란의 온상으로 지목되기에 이른다.

1955년 LCI구락부에서 여러 여성을 농락했던 박인수 사건은 교양으로 여겨졌던 댄스가 퇴폐적이고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며 댄스홀은 퇴폐와 타락의 온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찰스 패너티는 권력이나 교수자의 지도 없이 대중의 인기를 모은 최초의 사교댄스였던 왈츠의 인기요인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육체적인 접촉을 허용하지 않던 사회 분위기에서 왈츠를 매개로 서로 몸을 접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했는데¹⁹⁾ 댄스와 댄스홀이 당시 대중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찰스 패너티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양

17) 변혁, 정의숙, 『영화 『자유부인』에 표현된 춤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고찰』, 『무용에 술학연구』 28, 2009, 가을. 75면.

18) 작중에 등장하는 수정궁은 본격적인 댄스홀은 아니었고 댄스파티를 열던 장소로 보인다. 식민지 시기 일제가 지었던 이 일본식 건물은 1967년 헐어내고 김종업의 설계로 3분의 2를 춘당지 위에 지어 댄스홀과 예식장으로 운영하였다. 수정궁은 60년대 다시 지어지기 전까지 춘당지 옆 주변의 경치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던 공간으로 보인다.

19) 찰스 패너티, 『문화와 유행 상품의 역사』 1, 자작나무, 1977, 90쪽.

인 댄스와 그것을 공인하는 공간으로서의 댄스홀, 그러나 은밀하게 육체적인 접촉이 허용되고 그것이 개방적인 사회풍조와 맞물리는 순간 대중의 환호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오선영이 근무하는 파리양행 주인 이월선 여사의 남편 한태석은 오선영을 유혹하는데 그들의 만남은 레스토랑에서 댄스홀, 가회동의 여관으로 이어지고 가회동 여관은 두 사람이 불륜을 예비하는 곳이다. 작품 속 가회동 여관은 비밀이 보장되고, 선영이 자발적으로 한태석의 유혹에 넘어갈 준비를 하는 공간이다. 소설 속의 가회동 여관은 영화 속에서는 우이동의 산장으로 등장하며 집을 나온 오선영이 일탈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영화에서 우이동을 그러한 장소로 취한 것은 우이동이 외곽에 있어 자정을 넘어선 시간에 시내로 올 수 없는 거리이며 실제 불륜의 공간으로 기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통이 불편한 우이동 산장은 식민지 시기 소설 속에서도 겁탈과 일탈, 불륜의 장소로 주로 묘사되었다. 영화 〈자유부인〉에서는 한태석과 오선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직전에 이월선 여사가 등장하므로 두 사람의 불륜이 무위로 돌아가지만 일탈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유부인』이 평범한 가정주부 오선영의 일탈을 통해 변하는 윤리를 드러낸다면 은미와 달콤한 로맨스를 꿈꾸는 오선영의 남편 장태연을 통해서 변해가는 50년대 아베크 문화의 일단을 보여준다.

안국동 네거리와 중앙청 사이는 해만지면 언제나 시골길같이 호젓하다. 게다가 길이 언덕으로 되어있어서 젊은 여성과 함께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윽하였다. 옛날에는 덕수궁 담 뒤에 있는 영성문 고개를 사랑의 언덕길이라고 일러왔다. …… 남의 이목을 꺼리는 젊은 남녀들은 흔히 사랑을 속삭이고자 영성문 언덕길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물정도 바뀌는 법인지, …… 오늘날 이십대의 젊은이들은 영성문 고개가 사랑의 언덕길이었던 것조

차 모르게 되었다.

영성문 고개가 사랑의 언덕길로서 면목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 다음 왜정시대에 등장한 사랑의 길이 충무로 뒷거리 옛날의 소화통이었다. 지금은 자동차 먼지 때문에 눈살을 찌프릴 지경이지만, 그 거리도 옛날에는 아베크에 적당한 거리였다.

그러나 영성문 언덕길에 비기면 충무로 뒷거리는 훨씬 해방적이었다. 시대변천에 따라, 연애 자체가 그만큼 해방된 때문이었는지도 모르리라.

그 모양으로 사랑의 길이라는 것도 시대변천에 따라 자꾸 해방되어가서, 이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랑의 길 자체부터가 필요 없게 되었다. 서울장안 전체가 사랑의 도시가 되어서 연애는 아무데서나 맘대로 속삭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남녀가 인사대신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으니, 구태여 사랑의 길이라는 특수지대가 필요치 않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울의 사랑의 길의 변천사를 더듬어보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연애변천사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리라.

(하권 8~9)

한글 강습을 해주는 은미와 교습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은 장태연에게는 데이트의 설렘을 주는 아베크 공간이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충무로 뒷거리, 이제는 서울거리 어디나 젊은 남녀가 키스를 나누는 사랑의 거리가 되었다는 장태연의 인식은 숨어서 은밀하게 하던 연애나 데이트가 보편화된 풍속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자유부인』의 데이트 공간으로 흥미로운 곳 중 하나는 극장이다. 극장은 부인인 선영의 일탈을 못마땅해 하던 장태연이 은미를 보면서 젊은 여인에 대한 본능을 잘 보여주는 이중성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바쁘지 않으시면 오늘밤에 영화구경이나 가세요. 오늘저녁 일곱 시부터 미국 공보원에서 미녀 엠마라는 영국영화의 특별 시사회가 있어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미국사람들뿐이지만 제가 초대권을 두 장 얻었기에, 선생님과 같이 갔으면 해서 전할 걸었어요.” (『자유부인』 상권 132쪽)

식민지 시기 영화는 대중의 오락물로서 큰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해방 이후 헐리우드 영화는 엄청난 양이 수입, 상영되었다. 대중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미국의 대중문화에 친밀감을 느끼고 근대적 자본주의 모델, 자유로운 사랑, 성적인 개방 같은 것으로 미국의 이미지를 소비했다. 한글 교습을 받던 은미는 미 공보원에서 열리는 영화 시사회에 장태연을 초대하는데, 미 공보원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외교정책 등 해외홍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 설치한 기관으로 문화영화, 상업영화 등을 상영했다. 전쟁 이후 미 공보원에서 상영했던 영화는 일반 대중이 미국 문화를 쉽게 접하고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하며 미국적인 가치를 내재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장태연은 은미와 〈미녀 엠마〉를 보고난 후 부인인 오선영의 사회활동이나 댄스취미도 용인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봉건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선영의 사회생활을 반대했던 장태연으로서는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었다. 장태연과 은미가 본 영화 〈미녀 엠마〉는 영국의 영웅적 해군 이었던 넬슨제독과 엠마 해밀턴의 실제 사랑을 다룬 영화로 유부남이었던 넬슨제독이 남편이 있는 사교계의 여왕 엠마와 사랑에 빠진 세기적인 스캔들을 다룬 영화이다. 장태연의 심경의 변화는 은미에게 미묘한 연애감정을 느끼고 있던 그가 유부남이지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넬슨제독에게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이다. 봉건적인 윤리기준을 지니고 있던 장태연이 영화를 보고 선영의 사회생활을 수용한 것은 은미에 대한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승인하고자 했던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당대 대중은 영화를 통해 미국적 가치를 내재화했고, 극장은 대중에게 현실과는 거리가 먼 환상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짐작케 한다. 영화 관람을 통해 이국적 정서와 문화를 용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극장은 이국적인 문화를 체화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역할을 한 것이다.²⁰⁾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는 댄스홀, 중국집 아서원²¹⁾, 고급 레스토랑 그릴, 다방, 산장 등인데 “1950년대 중반 젊은세대나 기성세대가 여가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은 요리집(중국집), 영화관, 댄스홀”²²⁾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화관, 특히 전후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현실을 다룬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무겁고 진지한 영화보다 현실은 잊고 말초적 욕망을 충족시키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헐리우드 영화를 상영했던 영화관과 교양과 사교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댄스홀 등을 통해서 대중은 서양의 문화 특히 미국식 문화와 사고방식을 내재화했다. 또한 실재하는 현실은 지리멸렬하지만 대중소설 속 주인공의 인도에 따라 고급 중국 요리점, 다방, 그릴 등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하고 취향을 만들어 나갔다.²³⁾

20) 이선미는 1950년대 신문연재 소설을 분석하면서 데이트 이벤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영화 관람이고, 이시기 영화를 관람하는 일을 1950년대 영화상영관이 있었던 명동이라는 공간에 대한 문화체험으로 보고 있다.(이선미, 『헵번 스타일, 욕망·교양의 사회, 미국영화와 신문소설』, 『현대문학의 연구』4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242쪽) 그러나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영화 관람은 명동이라는 공간에 대한 문화체험이라기 보다는 서구적 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1) 아서원은 을지로 1가 18번지(식민지 시기 주소는 경성부 황금정이며 현재 롯데호텔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음. 중구 을지로 30번지)에 있었던 중국음식점으로 “해방이 된 후부터 1970년 폐업해 문을 닫을 때까지, 아서원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활동의 무대였고 최고급 사교장소”였던 곳이다. 당시 아서원의 규모는 한국화교들의 중화요리점 중에서 9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만큼 컸고 1,2 층은 온돌방과 홀로, 3,4층은 큰 홀로 개조해서 결혼이나 경로잔치, 친목 중친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진유광, 『중국인디아스포라 한국화교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2, 153) 중국인 디아스포라 164쪽)

22) 주창윤, 앞의 글, 288쪽.

23) 과거에는 소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적 체험과 취향을 만들었다면 오늘날에는 드라마나 대중매체를 통해 그러한 취향을 만들고 구성해나간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미드 〈섹스 앤 더 시티〉에 등장했던 브런치 문화가 현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데는 대중매체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1950년대 새로운 데이트 장소로 등장

정비석의 작품은 이 시기 작중인물들의 데이트 공간이었던 여러 장소를 통해 근대 도시 서울의 모습과 대중의 생각을 리얼리스틱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소비하면서 취향을 만들고 변해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3. 원초적 유혹과 욕망, 정신적 사랑의 혼재 공간

- 『인생화보』, 『실락원의 별』

『인생화보』와 『실락원의 별』은 식민지 시기 추리소설가로 활약했고, 해방 이후 『청춘극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김래성의 작품이다. 『인생화보』는 전쟁의 포화를 피해 전 재산을 정리해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 와중에 돈가방을 잃어버린 애림일가의 고달픈 삶의 여정과 그 돈가방을 주운 신용석 일가가 돈으로 인해 변해가는 시정세태 잘 그린 작품이다.

『인생화보』의 공간적 배경은 전쟁 기 부산으로 전쟁과 함께 피난민들이 들이닥치고 다양한 인물군상과 사연이 모여면서 전쟁 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적 공간이다. 부잣집 딸이었던 애림은 지금은 양공주라는 오해를 받으며 살고 있고, 우연히 신형우의 돈가방을 훔치면서 아이러니한 운명으로 인한 애욕과 애증이 펼쳐지는 곳이 부산이다. 소설가인 형우는 금전적인 욕망을 초월한 인물로 자기가족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준 돈가방이 애림의 것이었음을 알고 괴로워하는 인물이다.

반면 동생 형식은 우연히 얻은 부를 계속 늘리고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는 피난통에 주운 돈가방이 애림의 것이었음을 알지만 자산을

한 공간들은 대중의 체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버지와 뜻을 같이하는 도덕적인 고민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애림의 뛰어난 외모와 육체적인 매력에만 관심이 있어 호시탐탐 정복할 궁리를 한다. 부자집 딸로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애림은 피난과 함께 전락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가방을 훔치기도 하고 도덕적인 고민 없이 형식의 돈을 목적으로 데이트를 하는데 그들의 주된 데이트 공간은 고급 그릴과 온천이다.

30분후, 자동차는 동래온천 중심지대에 호화롭게 자리잡은 청운각 현관 앞에 멎었다.

인조암석으로 둘러싸인 풀이 있고 감나무와 구부러진 소나무가 운치 있게 수놓은 정원이 보이와 함께 두 손님을 아늑하게 맞이한다... 보이는 이층으로 올라가 동남을 향한 육조 다다미로 두사람을 인도하였다.

그리 값진 가구는 아니었으나 한편쪽에 체경이 달린 의장이 있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자개상 옆에 푸른 도기화로가 거의 꺼져가는 불티를 다듬고 있었다.

(『인생화보』 상권, 81~82)

차는 이윽고 송도 해수욕장으로 내려가자 해월관이라는 바다에 임해 있는 여관 겸 요정 앞에서 멎었다. 바다로 향한 육조 다다미, 미닫이를 열면 유리창이 달린 난간 밑으로 검푸른 바닷물이 철썩철썩 드나드는 밤이다.

(『인생화보』 중권, 73~74쪽)

형식은 애림의 환심을 사고 육체를 정복하기 위해 집에서 댄스파티를 하고 동래온천에 가서 술을 먹이기도 한다. 그들은 필요에 의해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장소인 외곽의 동래온천에서 애림은 형식의 육체적 욕망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 형식은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 애림에게 끊임없는 물량공세와 육체적 공격을 감행한다. 애림과 형식의 데이트 장소인 온천은 애욕과 욕망의 공간이다.

그 외 흥신소 사장 윤희덕이 돈가방의 비밀을 빌미로 애림을 유혹하

는 요정 역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형식의 친구인 김달호는 형식의 누이동생을 유혹해 형식 집안의 돈으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인물로 동아극장에서 형숙과 '시네마 감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화보』에서 데이트 공간으로서 극장은 『자유부인』같은 작품과는 다르게 희미하게 그려진다. 그것은 윤홍덕이나 김달호가 핵심 서사에서 빗겨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생화보』에서 데이트 공간은 등장인물의 행위의 목적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이들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인물들의 데이트 목적에 따라 각각의 장소가 가진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 외 『인생화보』에는 금강산 석왕사, 원산 송도원 등 식민지 시기 유명했던 피서나 정양의 공간이 등장하는데 이곳들은 형우를 짝사랑하는 남숙의 부모가 돌아다니던 구식의 데이트 장소로 그려진다. 그것은 식민지 시기 정양이나 데이트코스로 각광을 받았던 금강산, 석왕사, 송도원, 백천온천 같은 공간이 휴전으로 인해 갈수 없는 공간이 되었고, 영화나 댄스 골프 같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자연물의 관광은 구식의 데이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락원의 별』은 네 남매를 데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소설가 강석운과 여대생 고영림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파국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강석운은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러 가다가 인상적인 여대생 고영림을 만난다. 영림은 대학생이었던 석운에게 느낀 연모의 정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자기 올케를 만나 달라고 한다. 그러나 올케의 인생 상담을 자청했던 고영림은 석운과 사랑에 빠지고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다. 석운 역시 처음에는 고영림의 당돌한 행동에 불쾌해 하지만 그녀를 통해 시들어 가는 청춘을 돌리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며 영림에게 빠져든다. 영림이 유부남인 석운을 사랑하는 사실을

알게 된 영림의 부모는 둘의 사이를 반대하고 석운을 비난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강렬해져 영림의 오빠가 주최한 파티가 끝난 후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인다. 한편 현모양처로 남편 석운을 존경하며 살았던 옥영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충격을 받아 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 영림과 석운은 사랑에 눈이 멀어 대책 없이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남편에게 실망해 옥영까지 집을 나간 후에 부모를 찾는 아이들의 광고를 본 석운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

『실락원의 별』에는 다양한 인물군상과 데이트 장소가 등장한다. 『실락원의 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이트 장소는 다동 호수그릴, 소공동 그릴, 진고개 그릴 등의 서양식 식당이다. 본래 그릴이란 호텔이나 클럽의 간이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팔던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나중에 경양식집이란 용어로 변화했다. 이시기 대중소설에서 그릴은 격식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장소이며 흔치 않은 서양식음식으로 새로운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는데 영림과 석운이 처음 만나는 장소가 다동의 호수 그릴이다.

둘이는 이층 그릴로 올라가서 들창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선생님 치킨 좋아하세요?”

“좋아하지요”

학생은 보이에게 치킨이 섞인 정식과 맥주를 가져오라 하고

“오이스터 프라이 한 접시만 더 가져주세요”

했다.

(『실락원의 별』 상권, 182쪽)

영림은 석운과 호수다방에서 만나 이층의 호수그릴로 자리를 옮겨 데이트를 하는데 그때 영림이 시킨 메뉴가 소설가 석운이 작품 속에서 연

급했다는 오이스터 프라이(굴튀김)와 치킨이다. 치킨이나 프라이 류의 서양음식을 파는 그릴은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한 이국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체험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도시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0년대까지는 주막집이나 주식점, 목로주점 등의 형태로 음식점들이 생겨났고, 이후 한국인이 엠베서더, 해운대 호텔, 철도호텔 등을 운영하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양식이 보급되었다.²⁴⁾ 이러한 당시의 정황을 미루어본다면 50년대 대중소설 속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로서의 화려한 서양식 그릴이나 레스토랑 등은 서구적인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양을 상징하는 기제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락원의 별』의 주요 서사는 강석운과 고영림, 김옥영의 관계에서 파생하는 갈등이지만 또 다른 한 축은 영림의 오빠인 고영해와 그의 애욕의 대상인 애리의 이야기이다. 애리는 심성이 곱고 순정적이지만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술집에서 일하며 남자를 홀리는 팜프파탈 기질이 다분하고, 고영해는 병약한 부인을 두고 갖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애리를 유혹해 댄스홀 ‘애리자’를 차려주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주로 댄스홀, 바, 중국집 등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들의 데이트 공간은 주로 유혹과 욕망이 넘치는 공간이며 특히 애리가 경영하는 댄스홀 ‘애리자’는 원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이 가득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홀안은 축하화환과 오색의 등불로 휘황찬란했다. 밴드가 있는 스테이지 후면에는 츠렁츠렁 늘어진 검정 비로도 장막을 배경으로 하여

「꿈의 전당 애리자」

라는 일루미네이션이 작렬된 정열처럼 새빨강계 타오르고 있었다.

더 넓은 무도장을 중심으로 한 좌우 객석에는 한성양조의 특급주 「백부용」을

24) 김현주,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구조와 현황」,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쪽.

위시하여 양주와 맥주가 홍수처럼 범람했고 흰 가운을 입은 보이들이 음식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오락가락했다. (『실락원의 별』 중권, 547~548쪽)

시간의 경과와 함께 홀 안은 점점 문란해졌다. 주홍에 겨워 성급한 젊은 측들은 지르바를 추었다. …… 황산옥은 얼근해서 젊은이들과 마구 돌아갔다. …… 고영해는 이미 유현자를 함락시키는 최후단계까지 이르고 있었다. (『실락원의 별』 중권, 560쪽)

위의 예문은 카페 ‘에리자’의 개업식 날 다양한 인간군상이 모인 가운데 벌어진 천태만상을 묘사한 장면이다. 바람둥이 고영해를 비롯해 고영해의 아버지인 고사장의 첩실 황산옥, 고영해를 탐하는 유현자 등의 군상들이 돌아가고 있는 곳은 육육의 공간 댄스홀이다. 이러한 데이트 장소와 함께 『실락원의 별』에서는 이루지 못할 애정이 싹터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이는 영림과 석운을 통해 다양한 데이트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자하문 고개를 넘어 세검정에 다다랐을 무렵까지 석운과 영림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 개울을 끼고 차는 울퉁불퉁한 길을 어디까지나 자꾸 기어 올라갔다. 유흥객들이 술추렴을 하며 개울가 여기저기서 떠들어 대고 있었다. 개울 건너편 숲 속 사이에서도 그랬다. 조용한 아베크도 있었다. …… 차삿을 치르고 나서 돌이는 그냥 위로 걸어 올라갔다. 사람의 그림자가 드물어졌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여기 한 쌍 저기 한 쌍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실락원의 별』 중권 480쪽)

영육의 집순에서 인간의 꽃은 피었다. 예술도 피었다. 철학도 피었다. …… 영림은 강선생의 벽찬포옹 속에서 영혼의 불멸을 푸푹푸푹 느꼈다. …… 고영림의 불타는 의욕은 강선생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칸나는 다만 영육의 일치에서만 올 수 있는 참다운 연애의 감정의 실체를 강석운이라는 하나의 인격체에서 과학자처럼 정밀히 실험해보고 싶었을 따름이다. (『실락원의 별』 중권, 496~497쪽)

석운과 영림은 이 호텔 전부를 차지한 것처럼 자유를 향락하고 있었다. 일과처럼 들이는 대웅전 앞마당을 산보했고, 베비 골프도 했고, 산에 올라 깊은 숲 새에서 낮잠도 늘어지게 잤다. 밤에는 조그만 홀로 나가서 레코드를 틀어놓고 춤도 추었다. (『실락원의 별』 하권, 776쪽)

석운과 영림이 사랑을 확인하는 자하문의 아베크 능금밭이나,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이는 경주의 호텔과 베비골프장 등은 다른 데이트 장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외곽의 능금밭²⁵⁾은 『자유부인』의 산장이나 『별아 내 가슴에』에 등장하는 우이동의 북한장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욕망을 표상하는 의미 대신 욕망은 배제되고 사랑을 확인하는 아베크의 공간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하다. 1950년대 당시, 교통이 불편해 서울 도심에서 나가면 당일에 돌아오기 힘든 거리에 있던 세검정은 물리적 거리감으로는 다른 시외곽의 장소가 지닌 향락이나 쾌락의 의미가 강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실락원의 별』에서 세검정의 데이트 코스는 입맞춤을 한 두 사람이 육육이 아닌 영육의 일치에서 온 참다운 연애감정을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한편, 경주의 호텔이나 베비골프장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새로운 서구적 문화공간이었다. 경성에 베비골프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대이다. 베비골프장은 1931년 4월 9일 개장한 18개 홀로 구성된 미니 골프장으로 이용료는 30전이였다. 경성의 베비골프장은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다르게 도심의 작은 공간에 코스를 만들어 퍼팅만으로 경기를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골프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별다른 오락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시내에 설치된 베비골프라는 스포츠는 당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고, 골프의 특성상 남녀가 같이 즐길 수 있었

25) 자하문 밖은 옛날부터 능금, 앵두가 유명했는데 지금도 자하문밖 부암동에는 능금마을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다.

기에 데이트 코스로 적당해서 베비골프장은 대중 오락시설의 역할과 더불어 여성의 참여에 기여했다.²⁶⁾ 1930년대에 등장한 베비골프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았다. 영화 〈서울의 휴일〉에서는 여주인공 희원이 남편과의 데이트가 어그러진 후 덕수궁을 찾았다가 남편 친구들과 맥주내기 베비 골프대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베비골프장의 성행은 당시 인기 있던 오락으로 대중의 문화 취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육체적 욕망의 발화와 사회적 명분의 공간 - 『별아 내 가슴에』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는 미혜와 현암의 지고지순한 정신적 사랑, 현암에 대한 선일 어머니의 순애보적인 사랑과 함께 육체적인 욕망을 갈망하는 유한마담 홍정숙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던 작품으로 홍성기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대중의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

K여자 대학 음악과에 다니는 이미혜는 월남 이후 아버지의 제자였던 소설가 현암의 도움으로 대학에 다니며 아버지뻘인 현암을 의지하다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미혜의 친구 은심은 납치된 아버지를 두고 유한마담 노릇을 하는 어머니 홍정숙과 불화하는 사이이다. 홍정숙은 우연히 부산여행에서 만난 유명한 소설가 현암을 유혹하고, 현암이 모르는 현암의 아들이자 소설가 지망생인 현일에게도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는 인물이다. 현일은 미혜를 사랑하지만 미혜는 일편단심 현암만을 바

26) 조상우·신용호·곽성연, 『일제 강점기 경성골프사』,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2권5호 한국체육학회, 2013, 9쪽.

라보고, 남자에게 초연했던 은심은 선일에게 사랑을 느끼나 어머니의 몰지각한 행동에 실망해 속세를 떠난다. 현암은 선일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이후 미혜는 현암의 뜻을 받들어 선일과 고아원을 운영한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별아 내 가슴에』에도 다양한 데이 트 장소가 등장한다. 그중에서 휴양지 호텔의 댄스홀과 서울의 댄스홀은 홍정숙과 그녀의 친구들 같은 유한마담과 가정이 있지만 육체적인 접촉의 욕망에 사로잡힌 남성들의 원초적 욕망이 가득한 장소이다.

오후가 되면서부터는 반나체의 남녀로 바다는 뒤덮여 있었다. 「비취·파라솔」 밑에 수영복 바람으로 가지런히 엮디여 무엇을 속삭이는 젊은 남녀. 아이들은 데리고 보우트를 타는 중년부부. 「라이푸·버이」를 잡고 물장구치는 아이들. 해수욕장은 비등하는 열사와 함께 못 육체들도 비등하고 있었다.

(『별아 내 가슴에』 118쪽)

이들은 춤을 위한 춤이 아니고 애욕의 교류의 전주곡으로 춤이 필요했던 것 뿐이다. 즉 하나의 흥분제로 춤이 필요했던 것 뿐이다. (『별아 내 가슴에』 129쪽)

『별아 내 가슴에』는 1954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이 작품에 다채롭게 등장하는 서구적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체험, 댄스를 매개로 한 인물들의 유희와 타락은 대중적인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에서 댄스홀은 『자유부인』의 댄스홀처럼 새로운 자유의식이나 교양을 고양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이고 은밀한 애욕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의미화 한다. 『자유부인』의 오선영과 주변의 인물들이 댄스를 배우고 댄스홀을 찾는 명분은 댄스가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의 문화이며 교양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그 명분의 이면에는 숨겨진 육체적 욕망이 있지만 댄스나 댄스홀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

게 작동하고 있다.

반면 『별아 내 가슴에』에 등장하는 댄스와 댄스홀은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이며 육체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공간일 뿐이다. 한편, 원초적 욕망충족을 위한 것으로 댄스와 댄스홀이 있다면 이 작품에는 탈선과 불륜의 장소로 우이동의 ‘북한장’이 등장한다. 우이동의 ‘북한장’은 유한마담 홍정숙이 딸이 사랑하는 젊은 남성 선일을 유혹하기 위해 일을 꾸미는 장소로 가깝지 않은 곳에 있고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비밀상적인 공간이며 해방감으로 일탈을 부추기는 공간이다. 이와 함께 탐골승방, 시내암자, 신흥사, 진관사 등의 사찰 역시 작중 인물들의 데이트 코스로 등장하는데 이 공간들은 사찰이지만 참선과 경외의 장소가 아니라 남녀 손님을 받는 육욕의 공간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허영희는 오늘밤 「계」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선일을 지금부터 유인하여 우이동에 있는 북한장으로 끌고 갈 판이다. 자기집 차를 타면 운전사가 자기들 단 둘이 북한장으로 간 것을 알게 될 터이며, 어찌면 자고 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보니 자기집 운전사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별아 내 가슴에』 143~144쪽)

선일은 서울 주변의 사찰이나 유람지의 사찰이 대개가 유흥장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에 비웃기보다도 의분을 가져보기도 한다. (……) 소위 여성들만이 있다는 청량사를 위시하여 탐골승방, 한남동 여승암자, 신흥사, 진관사 등등의 허다한 서울주변의 절들의 경내를 기생, 유부녀, 여학생 할 것 없이 그들을 끼고 온 사나 이들의 돈에 아첨하여 중들은 그들에게 경내를 개방할뿐더러 심지어 방들을 유곽화 하는데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도리어 싱글벙글거리며 기뻐했던 일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았던가. (……) 허영희는 최철의 본처를 내쫓고 들어앉을 적에 최철과 같이 자주 놀러도 나오고 잠자기도 하던 절을 생각해 내며 말했다.

(『별아 내 가슴에』 147~148)

홍정숙의 친구이자 유한마담인 허영희 역시 선일을 유혹하기 위해 우

이동 북한장에 갈 계락을 짜는 중인데, 허영희가 현재 남편의 본처를 쫓아내기 위해 애욕의 행각을 벌인 곳이 서울 주변의 절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작품 안에서 거론 되는 절들 중 진관사는 50년대 아베크족들이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로도 꼽혔던 곳으로 『별아 내 가슴에』에서는 진관사를 비롯한 외곽의 사찰들을 유곽화한 유흥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찰의 유곽으로서의 기능은 고려가요 『쌍화점』에도 등장하지만 이시기 시 외곽에 있는 사찰은 불도의 도량이 아니라 유흥장으로서의 부정적인 기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곽의 사찰을 불륜의 장소로 상정한 것은 교외라는 거리감이 주는 일탈이나 해방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러한 까닭에 외곽, 교외에서의 데이트는 일탈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할 수 있었다.

한편, 『별아 내 가슴에』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 중에 흥미로운 곳은 유흠마담과 고위 공무원 남성들의 데이트 공간인 골프장이다. 청량리 골프장은 그들이 사업을 하는 사교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것을 매개로 은밀하게 육체적인 욕망을 발화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들이 골프장을 애용하는 것은 골프장이 그들의 욕망을 명분 있게 만들어 주고 문화적인 격식을 갖춘 곳으로 특권화, 차별화하였기 때문이다.

청량리에서 광장리로 나가는 중간에 『골프』장이 있다. 여기에는 장안의 실업가와 무영업자들을 위시하여 일부 고관들과 일부 은행가들이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어버린다.그러나 이 골프장이 상업외교의 괴이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최고의 창안자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골프』경기가 끝난 뒤에는 서로 실업가도 아니며 고관도 아니며 은행가도 아닌, 이틀이면 십만원이라는 입회금을 낸 같은 『골프』하는 회원으로서 저녁을 먹으러 요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장사를 위한 교제요리도 아니고 뇌물요리도 아니라는 지극히 무난하고도 대의명분이 서는 사교와 유흥이 되는 것이다.

(『별아 내 가슴에』 268-269쪽)

여기 골프장에 모인 신사숙녀 제씨들은 사실은 골프라는 외래의 오락을 다 즐겨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단지 그들 신사숙녀는 골프를 하는 척하는 것으로써 가장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취미를 가졌다는 랫텔을 이마에 하나 더 붙여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골프장을 이용함으로써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게 되는 이른바 『사바사바』를 출진 시켜보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들 신사숙녀는 골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골프장은 대합실에 불과한 것 뿐이다. 빨리 사바사바의 참모본부인 요정으로 요정으로……. (『별아 내 가슴에』 271쪽)

그들에게 골프장에서의 데이트는 “상업외교”, “대의명분이 서는 사교와 유희”,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취미를 가졌다는 랫텔”을 붙이는 행위이며, “사바사바”를 성공시키는 방법이다. 『별아 내 가슴에』에서 골프장은 이러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데이트 공간으로 그간 볼 수 있었던 연애풍경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골프라는 “외래의 오락”을 즐기지 않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당대인들의 생각, 그리고 서구의 것을 받아들여야 현대적인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들이 당대 대중이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방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전후 잠깐 동안 서구적 교양으로 생각했던 댄스는 대중의 취미로 급부상했으나 박인수 사건 이후 댄스홀은 사교장이며 문화적인 교양의 장소가 아니라 퇴폐의 온상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지금도 그렇지만 골프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까닭에 댄스보다 훨씬 더 문화적 취미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별아 내 가슴에』에 등장하는 유한마담과 고위공무원, 사업가들의 데이트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사랑이 가득한 데이트풍경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들이 골프장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나 애육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바사바”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수

단이다. 그들은 데이트에 수반되는 애욕마저도 “사바사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골프장을 “사바사바의 참모본부인 요정”으로 가기 위한 길로 인식하는 것도 그러한 생각의 반영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접대 골프라고 불리는 은밀한 로비의 시작이 이 시기에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들이 유한마담들과 어울려 골프장에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무원과 사업가가 골프를 핑계로 협잡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서구적인 대의명분을 위한 사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들의 골프장 데이트가 흥미로운 것은 골프장이라는 공간이 계급에 따른 문화적 취향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실락원의 별』에 등장하는 ‘베비골프장’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취향의 오락이자 데이트를 위한 코스라면 공무원 유한마담, 골프장, “사바사바”로 상징되는 골프장 데이트 코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시의 사회를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작동한다.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유한마담들의 사회적 타락에 일조를 한 것은 댄스와 댄스홀이라는 공간이었다. 댄스홀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이면서 동시에 자유를 갈망하는 행위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데이트는 새로운 서구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주를 이루었으나 『별아 내 가슴에』에 등장하는 유한마담들의 데이트 코스는 고위공무원 남성들이 개입되면서 문화적 체험이나 호기심을 충족하는 장소가 아니라 에로틱한 분위기 속에서 로비와 협잡이 판을 치는 공간으로 드러난다. 골프라는 새로운 서구의 취향이 실업가, 고위공무원, 유한마담의 세계와 결합하면서 이루어지는 데이트의 양상은 사회 계급의 취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하다. 유한마담과 골프장이라는 공간에서 데이트가 가능한 사람들은 협잡과 로비를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외곽의 골프장을 선호한 것은 그러한 이

유 때문이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1950년대의 대표적 대중소설가인 정비석, 박계주, 김래성의 대중소설에 등장한 데이트 코스의 분석을 통해 대중적 서사물에 구현된 당대의 연애풀경, 문화양상을 살피고 각기의 장소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950년대 대중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와 장소는 그들의 움직임에 알려주는 단순한 동선이 아니고, 50년대 대중의 문화적인 취향과 체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대중연애소설의 서사가 전개되는 주된 공간이 되는 연애풀경, 데이트 코스는 이야기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는데, 그들의 연애풀경 속에서 당대인들의 삶의 양상, 의식,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당대의 문화 및 삶, 연애풀경을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50년대의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는 고궁, 교외, 다방, 중국집, 극장, 무도장, 유원지, 바닷가 해수욕장, 온천장, 골프장, 백화점, 그릴, 약수터 등 다양하다. 작중인물들이 연애풀경을 벌이는 장소는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당대의 유행이나 당대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데, 어떤 데이트 코스를 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의도와 행위의 양상이 달라진다. 즉 작중의 주인공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은 다방 같은 소비의 공간일 때도 있고, 능금밭 같은 순수한 사랑의 표상공간, 댄스홀처럼 욕욕에 불타는 욕망을 발현하는 장소, 골프장 같은 서구적 문화취향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50년대 대중소설들 중 당대의 유행과 대중의 취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작중 인물들의 가장 중요한 데이트 장소는 댄스홀과 극장이다.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댄스홀은 교양인 댄스와 그것을 공인하는 공간으로서의 댄스홀, 그러나 은밀하게 육체적인 접촉이 허용되고 개방적인 사회풍조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대중을 설레게 했던 공간이다. 또한 헐리우드 영화를 상영하면서 전후의 비참하고 불행한 현실 대신 낭만적 환상을 심어주고 심지어는 사고의 전환까지도 가능케 한 극장은 이 작품의 핵심적인 데이트 공간으로, 작품을 수용한 일반 대중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감정이입의 상황을 제공했다.

김래성의 『인생화보』와 『실락원의 별』에 등장하는 데이트 공간은 원초적 유희와 욕망, 정신적 사랑, 이국적 경험이 혼재하는 곳이 주를 이룬다. 『인생화보』에는 돈을 구실로 육체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애욕의 공간으로 온천, 해변 등이 등장한다. 『실락원의 별』에는 이국적이고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릴, 대중적 오락과 데이트 장소인 베비골프장, 사랑의 표상인 능금밭 등이 등장하고 고영림의 오빠 고영해를 중심으로 타락한 유희의 공간으로서 댄스홀이 배경이 된다.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에는 육체적 욕망이 발화되고 문화적 명분이 혼재한 데이트 공간이 드러난다. 유한마담 홍정숙을 통해 불륜의 장소인 시 외곽의 사찰과 사교를 매개로 육체적인 욕망이 발화하는 골프장을 주요공간으로 노출시킨다. 여기서 골프장은 그들의 욕망에 명분을 부여하고 문화적인 격식을 갖춘 곳으로 설정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로비와 협잡의 공간으로 묘사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표지화 한다.

50년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데이트 코스는 비슷하지만 각기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다. 50년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댄스나 댄스홀을 다루는 방식도 작가들의 경험의 결이나 생각,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들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상화 된다. 같은 댄스홀이지만 『자유부인』과 박계주의 작품에 드러나는 댄스홀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자유부인』을 연재하는 과정에서 정비석은 한글논쟁이나 댄스로 인한 사회문제,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 유행 당시의 시정 세태를 리얼하게 그려냈다. 그러한 까닭에 정비석의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댄스홀 등의 데이트 코스는 다른 작품속의 댄스홀보다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반면 30년대 『순애보』로 주가를 높였던 박계주나 『마인』, 『대도전』의 김래성은 50년대 들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전 시기 대중작가로서 발휘했던 참신한 감각은 시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듯하다. 『별아 내 가슴에』는 박계주의 마지막 히트작이 되었고, 김래성 역시 『실락원의 별』 이후 감각적인 대중소설을 발표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같은 데이트 코스를 그리고 있음에도 김래성이나 박계주의 작품에 등장하는 댄스홀의 풍경은 『자유부인』의 생생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래성은 『실락원의 별』에서 석왕사, 금강산 관광 등 자연물의 관람을 구식의 데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락원의 별』에 등장하는 고영림과 강석운의 데이트 코스나 데이트 방식 역시 『자유부인』과는 다른 구식의 느낌이 강하다. 이는 이 시기 김래성이나 박계주가 대중소설 작가로서 시대적 감각이 약화되었고, 이전 시기의 제약된 경험의 집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0년대 데이트 코스는 한국전쟁 후 미군의 진주 등 전쟁 후의 시정세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쟁은 참혹한 상처를 남겼고 50년대 전반기 대중은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인 결핍을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의 가난과는 다른 미국영화가 보여주는 낭만적인 환상과 풍요가 대중들을 위로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받아들여진 서구식 풍경은 대중들을 위안하는 큰 기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대중소설의 테이트 풍경에 담겨있는 공간은 그러한 점에서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독자들에게 다가왔고, 현실세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풍경들을 만들어 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자유부인』
『인생화보』
『실락원의 별』
『별아 내 가슴에』

2. 논문과 단행본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진송,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 연구, 1999.
김현주,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구조와 현황』,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변희, 정익숙, 『영화 『자유부인』에 표현된 춤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고찰』, 『무용에
술학연구』 28, 2009, 가을. 59~83쪽.
민도정,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 이봉구의 수필 『명동백작』을 기초로
하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신명직,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 연구, 2003.
이상경, 『1950년대 한미관계와 한국문화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 1950년대 한국의 미국영화 상영과
관람의 의미』,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6, 73~105쪽.
이은숙·김희순·정희선, 『도시소설 속에 나타난 도시민의 여가공간 변화: 1950년
이후 수도권 배경의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권 3
호, 2008, 139~154쪽.
이은숙·김일립·장은미, 『소비를 통해본 서울 도시민의 생활양식: 1950년대 이후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1권 1호, 2009. 191~206쪽.
전봉관, 『경성기담』, 살림, 2006.
정인숙, 『도시연구동향:국문학분야 도시연구의 동향과 전망』, 『도시인문학연구』 3
권 1호, 2011, 287~310쪽.
조상우·신용호·곽성연, 『일제 강점기 경성골프사』,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
학』 52권5호 한국체육학회. 2013, 1~11쪽.
주창윤, 『1950년대중반 댄스 열풍』,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2009.4, 277~299쪽.

184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진유광, 『중국인디아스포라- 한국화교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2,
최예선·정구원, 『청춘남녀 백 년 전 세상을 탐하다』, 모요사, 2010.

Abstract

Korean Popculture & Romance in the Korean Popular Novel of the 1950s from the Viewpoint of Date Place

Kang, Ok-Hee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aking a look into the aspect of the popular culture at the time and change of the dating culture or style by the dating course in the popular novels from 1950's. The object works to the analysis are , 〈Madam Freedom〉 written by Beesuk Jung, 〈Life Picture〉, 〈The Star in the Lost Paradise〉 written by Raesung Kim, 〈Star in My Heart〉 written by Gyejoo Park,

The popular novles from the 50's shows the change of the aspect of the crowd's life and their resentments really well than any other pieces of literatures. Furthermore, the dating place and the course consists the main place as the narratives of the romance story and also makes the story various and interesting. It is believed that it is available to figure out the aspect of life, rituals and even the pattern of the consumption of the people that time by following the route of their dating course in the story. So, it is able to see the dating culture and the life of the period realistically by the popular novels.

The date courses in the popular novels from the 50's are various including a palace, countryside, a cafe, a Chinese restaurant, a theatre, a dance hall, an amusement park, a beach, a spa, a golf course, a department store, a grill, a water spring and etc. The dating place of the characters' shows the life of the people at that time and further, it reflects the trend and the rituals of the people at the time and it's very interesting to find out that the characters' intension and the aspect of the act differs by which place they go for the date. That is to say, where the characters live and be placed can appear as various meaning such as just be a place for consumption, place for the reflection of their pure love or sometimes for revealing their sexual desire.

This study refers the dating course from the pieces above not only tells the audience about the characters' route of the movement, but also a place for

reconstituting the cultural taste and the new cultural experience of the people in the 50's. Also, it is able to read the crowd's reflected desire by the semantic network of the meanings of the places. By accepting and experiencing the modern and new foreign experiences due to the dance hall or Hollywood movies which are embodied as the place for the new culture and sometimes as the place for the sexual desires, led people to experience about the theatre, grill, golf course or etc. Just the substitute experiences of keeping the tune of the foreign thoughts and the culture itself entertained the crowd.

(Key words: date course, dating culture, pattern of consumption, bathing beach, hot spring, department store, grill, space of consumption, revelation of desire, cultural taste, an exotic experience, an exotic atmosphere, vicarious experience)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